



풍력·태양광 경쟁입찰, 공급망·안보 강화

- 풍력 1.8GW, 비가격평가 강화, 부유식 해상풍력 입찰시장 신설
- 태양광 1.0GW, 저탄소 모듈 제품에 우대가격 도입
- 풍력·태양광 경쟁입찰 공고, RE100을 위한 PPA 중개시장 시범사업 연계

지난 5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전략’과 8월 발표한 ‘해상풍력 경쟁입찰 로드맵(이하 로드맵)’에 따라 공급망과 안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풍력·태양광 경쟁입찰을 개선하여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2024년 풍력·태양광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가 10.25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그간 발전사업자, 제조기업, RE100 수요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올해 입찰에서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풍력 경쟁입찰은 로드맵에서 제시한 입찰물량 수준과 입찰수요를 반영한 결과, 올해 1,800MW 내외(육상: 300MW, 해상: 1,500MW)를 선정한다. 해상풍력 중 고정식이 1,000MW 내외이며, 올해 처음 도입되는 부유식은 500MW 내외로 공고한다. 로드맵에 따라 비가격평가 지표(배점 40점→50점 확대)를 강화한 2단계 평가를 도입하여 선정하며, 상한가격(육지, SMP+1REC 가격 기준)은 글로벌 균등화발전비용(LCOE) 추세,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167,778원/MWh) 대비 육상풍력은 165,143원/MWh으로 하향, 해상풍력은 176,565원/MWh으로 상향하였다.

둘째, 태양광 경쟁입찰은 1,000MW 이내로 선정하며, 상한가격은 최근 입찰 경쟁률, REC 현물시장과의 가격 격차 등을 고려하여 지난해(153,494원/MWh) 대비 157,307원/MWh으로 상향하였다. 특히, 제조 과정에서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저탄소 태양광 모듈 사용을 촉진 시키기 위해 우대가격을 처음 도입하여 제품별 비용격차를 계약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RE100 수요기업의 최근 재생에너지 구매 수요를 고려하여, 자발적 민간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금번 태양광·육상풍력 경쟁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RE100 수요기업과의 매칭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1MW 이상 발전소, RE100 가입 국내기업 3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향후 사업대상 및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현재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변화하는 보급 환경에 부합하도록 경쟁입찰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올해 입찰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담당 부서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남명우 (044-203-5360)
		담당자	사무관	허정민 (044-203-5362)
		담당자	사무관	조현진 (044-203-5363)
		담당자	사무관	김진욱 (044-203-5364)

